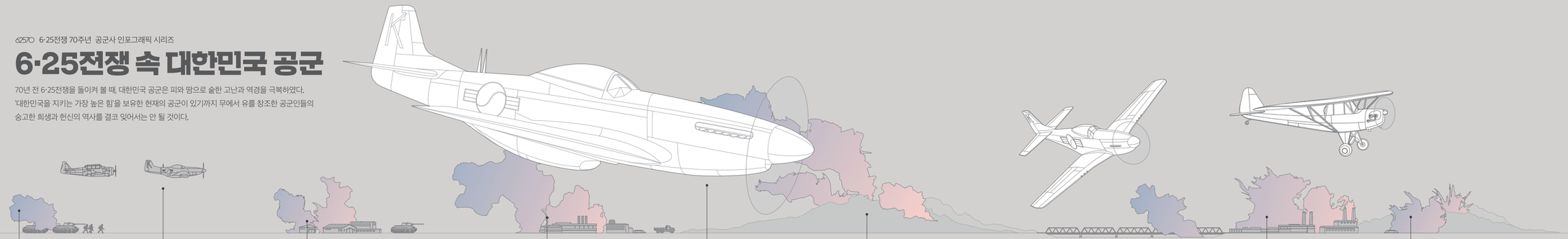
6·25전쟁 70주년 공군사 인포그래픽 시리즈

6·25전쟁 속 대한민국 공군

70년 전 6·25전쟁을 돌이켜 볼 때, 대한민국 공군은 피와 땀으로 숱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였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을 보유한 현재의 공군이 있기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공군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50년 6월 26일 ~ 27일

수도권 방어 항공지원작전

북한의 남침이 시작되자, 당시 보유하던 22대의 항공기를 동원하여 북한 지상군의 남하를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T-6 항공기에는 폭탄걸이를 장착하였고, L-형 항공기에는 가슴에 폭탄을 안고 출격하였다. 이 전투 출격은 274발의 폭탄이 전량 소모됨에 따라 중지되었다.

7월 2일 ~ 3일

F-51D 전투기 인수

기존에 보유한 항공기로는 북한 전차를 파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F-51D 전투기에 대한 지원협조가 이루어졌다.

선발된 10명의 조종사는 6월 26일 전투기 인수 차 일본 이타즈케 기지로 출발하였고, 7월 2일 F-51D 전투기와 함께 대구기지로 도착하였다.

8월 15일 ~ 9월 22일

진해기지 출격작전

철수작전에 따라 비행단을 7월 29일 진해기지로 이동하였고, 8월 15일부터 주로 낙동강 후방 서부전선에서 작전 중인 UN지상군에 대하여 공중지원작전을 수행하였다.

해당기간 총 93소티를 출격하여 탱크, 차량, 건물, 교량 등을 파괴하였다.

9월 23일 ~ 10월 13일

여의도기지 작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은 북상을 개시하였고, 우리 공군도 활주로 복구 작업이 완료되자 출격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9월 23일 신의주를 시작으로, 용암포, 선천, 곽산, 평양 등 지역을 공격하였다. 10월에 들어서는 적 후방차단작전에 주력하여 한국군 지상부대와 UN 지상군을 지원하였다.

12월 4일 ~ 1951년 4월 21일

백구부대 작전

중공군의 개입으로 평양 미림기지에서 철수했을 때, 백구부대를 제외한 비행단 전력이 제주기지로 이동하여 비행훈련에 집중하였다.

대전과 여의도기지에서 4개월에 걸친 백구부대의 분전은 후방에서 조종사 양성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방패역할을 했다.

8월 17일 ~ 9월 18일

지리산지구 공비토벌작전

7월 말 남한 각지에는 산악지대로 도주한 북한군 패잔병들이 남아 살인, 방화 등 후방지역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었다.

이에 사천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대한민국 공군의 F-51D 전투기와 T-6정찰기는 협동작전을 통해 전투작전훈련을 병행하며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1952년 1월 12일 ~ 15일

승호리철교 차단작전

미 제5공군은 새로 가설된 철교 폭파를 위해 수백차례 전투기를 출격시켰으나, 결국 폭파하지 못한 채 임무를 인계하였다.

대한민국 공군은 1,500ft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저고도 공격방법으로 작전에 성공하였다. 이는 공군의 작전능력과 전력신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7월 11일, 8월 4일, 8월 29일

평양대폭격작전

UN공군은 북한이 휴전협상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고자, 항공압박작전으로 평양에 3차례에 걸친 공습을 가하였다.

대한민국 공군은 8월 29일 총 36대의 F-51D 전투기를 출격시켜 공장건물 9동을 파괴하고 10동에 피해를 가하는 등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였다.

1953년 3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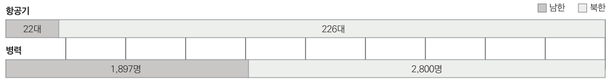
351고지전투 항공지원작전

휴전협정을 앞두고 한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펼쳐진 전투로, 공군과 육·해군이 합동으로 수행한 최초의 연합공지합동작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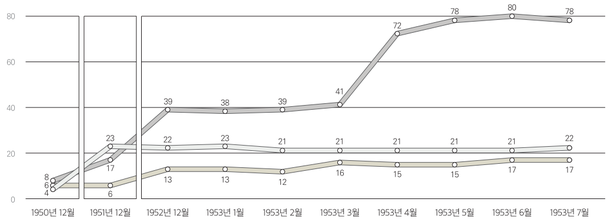
휴전이 성립되기 직전까지 적의 전세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속초 및 거진·간성 지역의 영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6·25전쟁 직전 남·북한 공군 전력비교

6·25 남침 당시 북한공군 총 병력은 약 2,800명이었으며, 항공기는 Yak-9 및 IL-10 전투기를 포함하여 항공기 226대를 보유하였다.
반면 대한민국 공군은 총 병력 1,897명과 경항공기 22대가 전부였으며, 전투기는 단 한대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6·25전쟁 전후 대한민국 공군 항공기 전력변화



중공군 개입과 대한민국 공군의 재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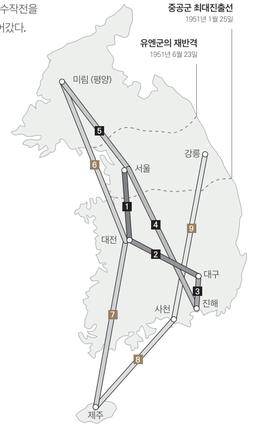
이 시기 한·만 국경까지 진격했던 국군과 UN군은 중공군의 대대적인 개입과 침투로 모든 전선에서 철수작전을 단행하였다. 1950년 12월 말 38도선까지 후퇴하였고, 북한지역 대부분은 다시 북한군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19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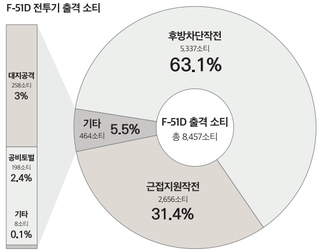
- 9월 15일 UN군 미 제10군단 및 미 해병대 인천상륙작전 개시
- 10월 1일 육군 제 3사단 38도선 돌파
- 10월 20일 UN군 평양 점령
- 10월 25일 중공군 한국전 개입
- 6 11월 30일 비행단 평양 미림기지에서 대전기지로 이동 명령 하달
- 12월 1일 UN군 총사령관 UN지상군의 후퇴 결정
- 7 12월 19일 공군비행단 주력 제주기지로 이동 비행훈련 전념
- 12월 19일 대전기지, 미 제6146기지부대와 백구부대가 출격임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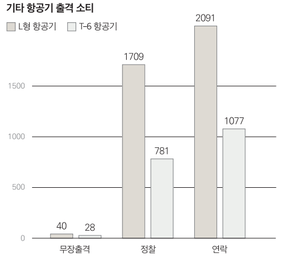
1951년

- 1월 4일 서울 2차 철수
- 3월 14일 UN군 서울 재탈환
- 3월 22일 백구부대 대전기지에서 여의도기지로 이동 시작
- 4월 3일 UN군 38선 돌파
- 8 6월 30일 공군 전투부대 사천기지 집결 완료
- 8월 5일 제1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진해)
- 9 9월 28일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 병력 강릉기지로 이동



6·25전쟁 대한민국 공군 출격전과





6·25전쟁 항공력 지원 국가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그리스	남아공	태국	터키
항공기 전력 (대)	약 1,500	미상	미상	6	9	119	3	0
항공기 피해 (대)	1,466	59	미상	1	4	78	0	0
병력 (명)	약 2,410,000	1,451	약 500	820	296	826	45	1
사망 (명)	1,180	40	52	미상	12	36	0	1

결재선을 미리 지울 후, 포스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 항공우주군 편집실 디자인 상병 김현준 감수 항공우주사기록관리단

6·25 DESIGN HYEON JUN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